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❷ 한국선법의 확산



▶ 한줄 요약
8세기 초 신라에서 출가한 이후에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정중 무상의 선법을 한국선의 원류(源流)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인 동산법문 정통성 확보한 '정중무상'

일반적으로 '한국선'이라고 말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의미의 범주는 다양하다. 우선 한국인에 의하여 한국에서 발아되고 전개되며 전승된 선법이라는 경우에는 '한국선'이라는 의미가 명백하다. 그러나 가령 한국인이면서 한국을 벗어나서 타국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경우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더구나 고국에서 출가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영향력이 타국에서만 전개되고 고국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가를 한 이후에 타국에 들어간 경우는 의심할 것도 없이 한국선의 범주에 수용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신라의 정중 무상(淨衆 無相, 684~762)의 경우 분명히 한국선의 역사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중 무상과 같은 경우에도 한국선의 원류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경우에는 역시 재고할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원류(遠流)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원류(源流)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선법을 한국에 수입 내지 전승했다든가 혹은 전개 내지 발전시켰어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중 무상의 선법은 8세기 초에 신라에서 출가한 이후에 입당한 선사이기 때문에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다 '원류(源流)'라는 의미를 붙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정중 무상의 선법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이 전개한 선법에 대하여 그 성격은 분명 한국선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원류(源流)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 무상이 활동했던 시기가 8세기 전반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이미 법랑으로부터 중국 선종의 동산법문의 선법이 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행에 의하여 경주에 법랑의 선법이 경주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무상의 선법은 신라선의 역사에서는 그 법맥의 전승이 문헌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무상의 선법은 중국 선종에서는 오조 홍인의 문하에서 소위 정중종(淨衆宗)이라는 종명으로 형성되었고 전개되었으며, 이후에 무주(無住, 714~774)의 보당종(保唐宗)으로 계승됨으로써 중국 사천성에서 전개된 선법으로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경우에 선종사에서 무상이 전승한 선법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중종의 경우에 안사(安史)의 난이 전개되었던 와중에 재상으로서 당나라 황실과 밀접했던 두흥점(杜鴻漸, 709~769)의 지지를 받아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북종 계통의 전등사서인 두비(杜朏)의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716)에 대항하여 달마선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보당종 문하에서 편찬했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774)에서 대단히 중요시되었던 점 등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다. 더욱이 〈속고승전〉에 의하면 보리달마의 문하인 승부(僧副)에 의하여 일찍이 사천(四川) 지방에 선법이 소개 및 전개되어 있었는데, 이 점은 무상이 전승한 법맥이 오조 홍인(五祖 弘忍, 601~674)-자주 지선(資州智詵)-처적(處寂)-정중 무상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홍인의 동산법문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달마로부터 직접 전승된 지역의 선법이라는 명분까지 획득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로써 무상의 선법은 한국선의 역사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담보해주고 있다.

무상 선법, 한국선 범주 문명
오조홍인 문하서 정중종으로
달마선법의 정통성 계승주장

중국의 전등사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 가운데서 특히 무상의 선법은 〈역대법보기〉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등사서로서 〈역대법보기〉의 출현은 정중종 및 보당종의 사람들에 의하여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인 즉 당시에 정법안장의 전승에 대한 상징적인 물증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부처님의 가사(袈裟)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를 거쳐 혜능에게 전수되었고, 혜능은 가사를 측천무후에게 바쳤는데 그것이 측천무후의 칙명에 의하여 지선에게 전승되었으며, 처적-무상-무주에게로 계승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정중무상이 위치한다.

무상은 매년 섣달과 정월에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수계를 하였다. 장엄하게 시설된 도량에서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는데,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하는데 한 번의 호흡이 단절되는 때까지 시킨다. 그리하여 망념이 단절되고 염불소리가 정지되는 때가 되면 "무억(無憶)하고, 무념(無念)하며, 막망(莫忘)하라. 무억은 곧 지계이고, 무념은 선정이며 막망은 지혜이다. 이 삼구의 말씀은 곧 총지문(總持門)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무상은 말한다. "우리의 달마 조사께서 전승한 이 삼구어는 곧 총지문이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지계의 문이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선정의 문이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지혜의 문이다. 그래서 망념이 없으면 곧 지계와 선정과 지혜가 구족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항사처럼 많은 제불도 이 삼구문을 통하여 깨침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문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도리이다." 이처럼 무상의 삼구법문은 삼학(三學)의 이치를 수행의 방식과 의례의 방식으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제시하여 정중종의 선법으로 널리 호응을 얻었다.



중국 오백나한도 중 455번째 조사에 올라있는 정중 무상 선사.

한편 〈능가사자기〉(716)에는 오조 홍인의 문하로서 고구려 승려 지덕(智德)이 신수, 혜능, 지선, 법여, 현색, 노안, 혜장, 현약, 의방 등과 더불어 십대제자 가운데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조당집〉(952)에는 신라출신의 선자로서 제운화상 영조, 복청화상 현눌, 원적선사 도의, 동리화상 혜철, 실상화상 홍직, 혜목화상 현욱, 통효대사 범일, 성주 무염국사, 쌍봉화상 도윤, 신라승 김대비, 서운사 화상 순지 등 11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후 송 대에 출현한 〈경덕전등록〉(1004)에서 총 41명 가운데 익주 무상선사 등 17명에 대해서는 기연어구를 기록하고, 본여(本如) 등 24명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설봉 의존(雪峯 義存, 822~908)의 법사인 영조(靈照) 및 현눌(玄訥)은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당 말 · 오대에 신라인으로서 선법을 진작한 인물이었다.

영조선사가 처음 용화사(龍華寺)에 와서 다음과 같이 상당설법을 하였다. "선의 종지가 지니고 있는 오묘한 도리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겠다. 만약 대도(大道)의 현묘한 가르침이라면 삼계를 감싸서 일문(一門)으로 간주하고, 모든 시방세계를 정안(正眼)으로 간주한다. 세존은 영산에서 설법한 이후에 마하가섭(摩訶迦葉)한테 깨달음 곧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부촉하였는데, 그것을 조사들이 서로 계승함으로써 정법안장이 전승되었다. 남천축국왕의 태자로서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달마대사(達摩大師)라 불렸다. 달마는 부처님의 심인을 전승하기 위하여 특별히 십만팔천리를 사이에 두고 중국에 도래하여 '내가 이 땅에 건너온 이유는 전법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천 년 동안 진리의 바람이 소멸되지 않았다. 여기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태조 세황(太祖 世皇)은 불법을 숭경하였고, 지금의 전하(殿下)도 삼보를 경중하여 대승을 천양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대조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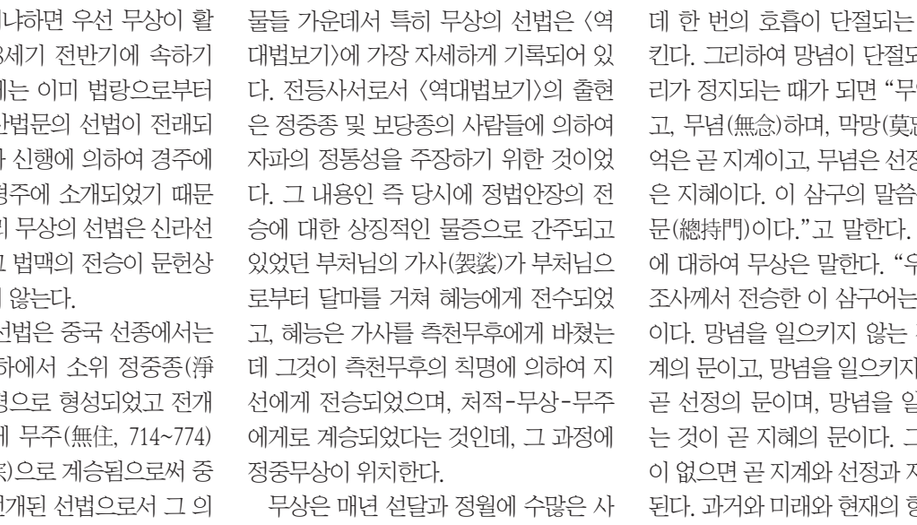
영조의 이 설법에 보이는 내용은 조사선의 사상과 그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정법안장의 계승에 대한 안목과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불법의 현묘한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고,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가 불법의 소유자라는 것이며, 불법을 홍포하는 목적은 불법이 단절되지 않게 유지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영조의 이와 같은 안목은 당시에 중국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던 선종의 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직후에 분립되기 시작한 선종오가(禪宗五家)의 출현에 공통적인 요소였다.

복청화상(福淸和尙) 현눌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인왕(人王)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인왕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킨다." "법왕(法王)이란 무엇입니까." "법왕에게는 하늘을 가리킬 손도 없고 땅을 가리킬 손도 없다." "인왕과 법왕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대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러자 승이 다시 물었다.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화상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말했다. "내년에는 새 가지가 뻗어나서 계절에 상관없이 자라겠구나."

어떤 승이 물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반년 치의 양식을 잃어버렸구나." "어째서 반년 치의 양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남의 쌀 한 말을 탐냈기 때문이다." "원이삼점(圓伊三點)의 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훌륭한 가풍이란 어떤 것입니까." "훌륭한 가풍은 접어두고, 지금 그대의 가풍은 어떤가." "저는 아직 출세하지도 못했는데 가풍인들 있겠습니까." "가풍 없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인왕과 법왕은 부처님이 세간과 출세간에서 연출한 모습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하여 현눌은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은 마치 새로 뻗은 나뭇가지처럼 일 년 내내 지속적으로 생장하듯이 불법의 영원한 속성을 의미한다. 한편 깨달음이란 어떤 도그마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연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원이삼점으로 비유하고 있다. 원이삼점은 실담자의 음가 이(伊)는 그 형상이 삼점(三點)의 삼각형 모양이다. 삼점의 관계는 상하 · 전후 · 좌우가 동일하지 않지만 다르지도 않고, 서로 앞과 뒤가 없으며,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붙어 있지도 않는 모습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형상이다. 그것은 마치 어느 작가의 말처럼,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한 쪽빛 하늘은 한조각의 구름도 없이 뎅그렁한 허공에 더덩실 둥근 달을 띄워놓고 고대광실이나 초가삼간이나 구별 없이 한결같이 빛을 토해내어 세상의 티끌을 정화하면서도 대낮에는 밤과는 전혀 달리 온갖 다른 차별세계를 내보여주고, 산들바람은 뒷방의 늙은이 등을 타고나려 소녀의 소맷자락을 살짝 스치고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불어가면서 눈곱만치의 흔적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바로 청명한 하늘과 산들바람의 관계처럼 깨달음은 체용일여(體用一如)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